

『구역인왕경』·『자비도량참법』의 어미

: 자료 내적 검토와 외적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강혁

1. 들어가며

- 본 발표문은 『구역인왕경』 권상(이하 <구인>)과 『자비도량참법』 권4(이하 <자비>)의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대상으로 삼아 주목할 만한 내용만을 추려 총 3개의 절로 준비하였음.
- <구인>과 <자비>의 어미로 연구 대상과 주제가 한정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연구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 자료 내적 검토: 해당 문헌들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어미(혹은 어미구조체)의 양상에 주목하여 검토하는 것임. 가령 A라는 선어말어미가 다른 문헌에 비하여 두드러진다면, 왜 빈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문에서 주로 확인되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① 선어말어미 ‘-ㄷ-’의 빈출(2장 1절)
 - ② 미지의 ‘-’ 분포 양상 검토(2장 2절)
 - ▶ 자료 외적 확장성: 해당 문헌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다른 문헌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임. 주지하다시피 <구인>과 <자비>는 계통론적으로 유가사지론과 화엄경의 중간적인 양상들을 지니고 있음(문헌수 2020 참조). 이에 <구역> 혹은 <자비>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다른 문헌에까지 확대하여 검토한다면 계통론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음. 다시 말해, 유가사지론과 화엄경 계통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음.
 - ③ ‘-ㅁ’과 ‘-ㅁㅅ’의 담화적 위계 설정(2장 3절)
- 끝으로 요약과 한계점을 제시함. (3장)

2. <구인>과 <자비>의 어미 검토

2.1. 선어말어미 ‘-ㄷ-’의 빈출

- <구인>과 <자비>에서는 선어말어미 ‘-시-’가 특히 빈출됨.
- 총 133회, 그럼 이게 많은 수치인가?

대상 빈도	<구인>, <자비> 횟수
비교 빈도	나머지 전체 말뭉치에서 나온 횟수
대상 내 비율	대상 문헌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내 비율	나머지 말뭉치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대빈도	전체 분포가 평범했다면 대상 문헌에서 이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횟수
O/E	실제빈도 ÷ 기대빈도. 1보다 크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FDR q	이 차이가 우연일 가능성을 보는 값. 특히 FDR q가 .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봄
-------	--

(1) <구인>·<자비> 선어말어미 ‘-ㄷ-’의 통계

항목	ㄷ
대상 빈도	133
비교 빈도	86
대상 내 비율	3.26%
비교 내 비율	0.34%
기대 빈도	30.21%
O/E	4.40
FDR q	1.88e-57

(2) 전체 선어말어미 ‘-ㄷ/ㅌ-’ 통계

문헌	-ㄷ-	-ㅌ-
<화소>	0	44
<화엄>	4	33
<구인>	115	0
<금광>	77	0
<유가>	5	0
<자비>	18	0

- 선어말어미 ‘-ㄷ-’는 <구인>과 <자비>에서 133회 출현하여, 비교 말뭉치[<구인>과 <자비>를 제외한 자토석독구결 말뭉치: <화소>, <화엄>, <금광>, <유가>]의 86회보다 절대 빈도에서도 많고, 대상 내 비율도 3.26%로 비교 말뭉치의 0.34%보다 현저히 높음. 기대빈도는 30.21회에 불과하나 실제 빈도는 133회로 나타나 O/E 값이 무려 4.40에 이르며 FDR q 값이 1.88e-5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ㄷ-’는 <구인>과 <자비>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과대표되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음.
- <구인> 115회, <자비>에서 18회이므로 (1)의 수치는 <구인>의 특징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됨.
- <구인> 말뭉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과대표되는 수치임은 분명함.
- 문헌 혹은 계통에 따라 높임 대상의 범위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함.
- 즉, <구인>은 높임 대상이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음.

(3) 各々各々ハ座前セ花ニ上テ量無セテ化佛リ有ナハニテ量無セテ菩薩: 比丘: 八部: ノ外セ 大衆リ 有ナハニテ 各々各々ハ寶蓮花上テ 坐ッニテ 花上テ皆セ量無セテ國土リ有セリテム一一國土上テ佛: 及ハ大衆: ノ外リッ白リテム今乙 {如} 異ッテ 無セニテ 一一國土セ中リセ一一佛: 及ハ大衆: ノ外リ 各々各々ハ般若波羅蜜乙 説ヒハニ (제각각 자리 앞에 있는 꽃으로부터 위에 한이 없는 화佛이 계시며 한이 없는 보살이니 비구니八部니 하는 大衆이 계셔서 제각기 寶蓮花에

없으시며 꽃 위에 모두 한량 없는 국토가 있는데, 국토 하나하나마다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가 있되, 지금과 같이 다름이 없으시며 각 國土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마다 각각 般若波羅蜜을 말씀하시고 있다) <구인02:03-07>

(3') 量 無¹ 諸 菩薩¹ 菩提心² 退 不³ 奉⁴ 護⁵ 護⁶ 量 無⁷ 邊 無⁸ 比丘⁹ 法眼淨¹⁰ 得¹¹ 護¹² (한량없는 여러菩薩은菩提心を 물러나게 하지 않으셨으며, 한량없으며 끝없는比丘는法眼淨을 얻었으며) <금광 14:23-24>

(3'') 於諸花上 一一復有無量化佛 無量菩薩 四眾八部悉皆無量 其中諸佛各各宣說般若波羅蜜多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 (3)에서는 ‘大衆’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살, 비구, 팔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금광>에서는 무량비구에 대해서 무량보살과 구분하여 높이지 않음(3').
- 신역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설법 주체에서 대중을 제외하고 오로지 ‘諸佛’로 한정하고 있음(3'').
- (3)과 (3')은 모두 특정 인물의 발화가 아니라 서분과 같이 배경 등에 대한 서술부에 해당하므로 현토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4) 爾¹ 時² 佛³ 大衆⁴ 告⁵ 諸⁶ 十六 大國王⁷ 意⁸ 國土⁹ 護¹⁰ 護¹¹ 因緣¹² 問¹³ 白¹⁴ {欲¹⁵} 人¹⁶ 護¹⁷ 護¹⁸ 護¹⁹ 護²⁰ 護²¹ 護²² 護²³ 護²⁴ 護²⁵ 護²⁶ 護²⁷ 護²⁸ 護²⁹ 護³⁰ 護³¹ 護³² 護³³ 護³⁴ 護³⁵ 護³⁶ 護³⁷ 護³⁸ 護³⁹ 護⁴⁰ 護⁴¹ 護⁴² 護⁴³ 護⁴⁴ 護⁴⁵ 護⁴⁶ 護⁴⁷ 護⁴⁸ 護⁴⁹ 護⁵⁰ 護⁵¹ 護⁵² 護⁵³ 護⁵⁴ 護⁵⁵ 護⁵⁶ 護⁵⁷ 護⁵⁸ 護⁵⁹ 護⁶⁰ 護⁶¹ 護⁶² 護⁶³ 護⁶⁴ 護⁶⁵ 護⁶⁶ 護⁶⁷ 護⁶⁸ 護⁶⁹ 護⁷⁰ 護⁷¹ 護⁷² 護⁷³ 護⁷⁴ 護⁷⁵ 護⁷⁶ 護⁷⁷ 護⁷⁸ 護⁷⁹ 護⁸⁰ 護⁸¹ 護⁸² 護⁸³ 護⁸⁴ 護⁸⁵ 護⁸⁶ 護⁸⁷ 護⁸⁸ 護⁸⁹ 護⁹⁰ 護⁹¹ 護⁹² 護⁹³ 護⁹⁴ 護⁹⁵ 護⁹⁶ 護⁹⁷ 護⁹⁸ 護⁹⁹ 護¹⁰⁰ 護¹⁰¹ 護¹⁰² 護¹⁰³ 護¹⁰⁴ 護¹⁰⁵ 護¹⁰⁶ 護¹⁰⁷ 護¹⁰⁸ 護¹⁰⁹ 護¹¹⁰ 護¹¹¹ 護¹¹² 護¹¹³ 護¹¹⁴ 護¹¹⁵ 護¹¹⁶ 護¹¹⁷ 護¹¹⁸ 護¹¹⁹ 護¹²⁰ 護¹²¹ 護¹²² 護¹²³ 護¹²⁴ 護¹²⁵ 護¹²⁶ 護¹²⁷ 護¹²⁸ 護¹²⁹ 護¹³⁰ 護¹³¹ 護¹³² 護¹³³ 護¹³⁴ 護¹³⁵ 護¹³⁶ 護¹³⁷ 護¹³⁸ 護¹³⁹ 護¹⁴⁰ 護¹⁴¹ 護¹⁴² 護¹⁴³ 護¹⁴⁴ 護¹⁴⁵ 護¹⁴⁶ 護¹⁴⁷ 護¹⁴⁸ 護¹⁴⁹ 護¹⁵⁰ 護¹⁵¹ 護¹⁵² 護¹⁵³ 護¹⁵⁴ 護¹⁵⁵ 護¹⁵⁶ 護¹⁵⁷ 護¹⁵⁸ 護¹⁵⁹ 護¹⁶⁰ 護¹⁶¹ 護¹⁶² 護¹⁶³ 護¹⁶⁴ 護¹⁶⁵ 護¹⁶⁶ 護¹⁶⁷ 護¹⁶⁸ 護¹⁶⁹ 護¹⁷⁰ 護¹⁷¹ 護¹⁷² 護¹⁷³ 護¹⁷⁴ 護¹⁷⁵ 護¹⁷⁶ 護¹⁷⁷ 護¹⁷⁸ 護¹⁷⁹ 護¹⁸⁰ 護¹⁸¹ 護¹⁸² 護¹⁸³ 護¹⁸⁴ 護¹⁸⁵ 護¹⁸⁶ 護¹⁸⁷ 護¹⁸⁸ 護¹⁸⁹ 護¹⁹⁰ 護¹⁹¹ 護¹⁹² 護¹⁹³ 護¹⁹⁴ 護¹⁹⁵ 護¹⁹⁶ 護¹⁹⁷ 護¹⁹⁸ 護¹⁹⁹ 護²⁰⁰ 護²⁰¹ 護²⁰² 護²⁰³ 護²⁰⁴ 護²⁰⁵ 護²⁰⁶ 護²⁰⁷ 護²⁰⁸ 護²⁰⁹ 護²¹⁰ 護²¹¹ 護²¹² 護²¹³ 護²¹⁴ 護²¹⁵ 護²¹⁶ 護²¹⁷ 護²¹⁸ 護²¹⁹ 護²²⁰ 護²²¹ 護²²² 護²²³ 護²²⁴ 護²²⁵ 護²²⁶ 護²²⁷ 護²²⁸ 護²²⁹ 護²³⁰ 護²³¹ 護²³² 護²³³ 護²³⁴ 護²³⁵ 護²³⁶ 護²³⁷ 護²³⁸ 護²³⁹ 護²⁴⁰ 護²⁴¹ 護²⁴² 護²⁴³ 護²⁴⁴ 護²⁴⁵ 護²⁴⁶ 護²⁴⁷ 護²⁴⁸ 護²⁴⁹ 護²⁵⁰ 護²⁵¹ 護²⁵² 護²⁵³ 護²⁵⁴ 護²⁵⁵ 護²⁵⁶ 護²⁵⁷ 護²⁵⁸ 護²⁵⁹ 護²⁶⁰ 護²⁶¹ 護²⁶² 護²⁶³ 護²⁶⁴ 護²⁶⁵ 護²⁶⁶ 護²⁶⁷ 護²⁶⁸ 護²⁶⁹ 護²⁷⁰ 護²⁷¹ 護²⁷² 護²⁷³ 護²⁷⁴ 護²⁷⁵ 護²⁷⁶ 護²⁷⁷ 護²⁷⁸ 護²⁷⁹ 護²⁸⁰ 護²⁸¹ 護²⁸² 護²⁸³ 護²⁸⁴ 護²⁸⁵ 護²⁸⁶ 護²⁸⁷ 護²⁸⁸ 護²⁸⁹ 護²⁹⁰ 護²⁹¹ 護²⁹² 護²⁹³ 護²⁹⁴ 護²⁹⁵ 護²⁹⁶ 護²⁹⁷ 護²⁹⁸ 護²⁹⁹ 護³⁰⁰ 護³⁰¹ 護³⁰² 護³⁰³ 護³⁰⁴ 護³⁰⁵ 護³⁰⁶ 護³⁰⁷ 護³⁰⁸ 護³⁰⁹ 護³¹⁰ 護³¹¹ 護³¹² 護³¹³ 護³¹⁴ 護³¹⁵ 護³¹⁶ 護³¹⁷ 護³¹⁸ 護³¹⁹ 護³²⁰ 護³²¹ 護³²² 護³²³ 護³²⁴ 護³²⁵ 護³²⁶ 護³²⁷ 護³²⁸ 護³²⁹ 護³³⁰ 護³³¹ 護³³² 護³³³ 護³³⁴ 護³³⁵ 護³³⁶ 護³³⁷ 護³³⁸ 護³³⁹ 護³⁴⁰ 護³⁴¹ 護³⁴² 護³⁴³ 護³⁴⁴ 護³⁴⁵ 護³⁴⁶ 護³⁴⁷ 護³⁴⁸ 護³⁴⁹ 護³⁵⁰ 護³⁵¹ 護³⁵² 護³⁵³ 護³⁵⁴ 護³⁵⁵ 護³⁵⁶ 護³⁵⁷ 護³⁵⁸ 護³⁵⁹ 護³⁶⁰ 護³⁶¹ 護³⁶² 護³⁶³ 護³⁶⁴ 護³⁶⁵ 護³⁶⁶ 護³⁶⁷ 護³⁶⁸ 護³⁶⁹ 護³⁷⁰ 護³⁷¹ 護³⁷² 護³⁷³ 護³⁷⁴ 護³⁷⁵ 護³⁷⁶ 護³⁷⁷ 護³⁷⁸ 護³⁷⁹ 護³⁸⁰ 護³⁸¹ 護³⁸² 護³⁸³ 護³⁸⁴ 護³⁸⁵ 護³⁸⁶ 護³⁸⁷ 護³⁸⁸ 護³⁸⁹ 護³⁹⁰ 護³⁹¹ 護³⁹² 護³⁹³ 護³⁹⁴ 護³⁹⁵ 護³⁹⁶ 護³⁹⁷ 護³⁹⁸ 護³⁹⁹ 護⁴⁰⁰ 護⁴⁰¹ 護⁴⁰² 護⁴⁰³ 護⁴⁰⁴ 護⁴⁰⁵ 護⁴⁰⁶ 護⁴⁰⁷ 護⁴⁰⁸ 護⁴⁰⁹ 護⁴¹⁰ 護⁴¹¹ 護⁴¹² 護⁴¹³ 護⁴¹⁴ 護⁴¹⁵ 護⁴¹⁶ 護⁴¹⁷ 護⁴¹⁸ 護⁴¹⁹ 護⁴²⁰ 護⁴²¹ 護⁴²² 護⁴²³ 護⁴²⁴ 護⁴²⁵ 護⁴²⁶ 護⁴²⁷ 護⁴²⁸ 護⁴²⁹ 護⁴³⁰ 護⁴³¹ 護⁴³² 護⁴³³ 護⁴³⁴ 護⁴³⁵ 護⁴³⁶ 護⁴³⁷ 護⁴³⁸ 護⁴³⁹ 護⁴⁴⁰ 護⁴⁴¹ 護⁴⁴² 護⁴⁴³ 護⁴⁴⁴ 護⁴⁴⁵ 護⁴⁴⁶ 護⁴⁴⁷ 護⁴⁴⁸ 護⁴⁴⁹ 護⁴⁵⁰ 護⁴⁵¹ 護⁴⁵² 護⁴⁵³ 護⁴⁵⁴ 護⁴⁵⁵ 護⁴⁵⁶ 護⁴⁵⁷ 護⁴⁵⁸ 護⁴⁵⁹ 護⁴⁶⁰ 護⁴⁶¹ 護⁴⁶² 護⁴⁶³ 護⁴⁶⁴ 護⁴⁶⁵ 護⁴⁶⁶ 護⁴⁶⁷ 護⁴⁶⁸ 護⁴⁶⁹ 護⁴⁷⁰ 護⁴⁷¹ 護⁴⁷² 護⁴⁷³ 護⁴⁷⁴ 護⁴⁷⁵ 護⁴⁷⁶ 護⁴⁷⁷ 護⁴⁷⁸ 護⁴⁷⁹ 護⁴⁸⁰ 護⁴⁸¹ 護⁴⁸² 護⁴⁸³ 護⁴⁸⁴ 護⁴⁸⁵ 護⁴⁸⁶ 護⁴⁸⁷ 護⁴⁸⁸ 護⁴⁸⁹ 護⁴⁹⁰ 護⁴⁹¹ 護⁴⁹² 護⁴⁹³ 護⁴⁹⁴ 護⁴⁹⁵ 護⁴⁹⁶ 護⁴⁹⁷ 護⁴⁹⁸ 護⁴⁹⁹ 護⁵⁰⁰ 護⁵⁰¹ 護⁵⁰² 護⁵⁰³ 護⁵⁰⁴ 護⁵⁰⁵ 護⁵⁰⁶ 護⁵⁰⁷ 護⁵⁰⁸ 護⁵⁰⁹ 護⁵¹⁰ 護⁵¹¹ 護⁵¹² 護⁵¹³ 護⁵¹⁴ 護⁵¹⁵ 護⁵¹⁶ 護⁵¹⁷ 護⁵¹⁸ 護⁵¹⁹ 護⁵²⁰ 護⁵²¹ 護⁵²² 護⁵²³ 護⁵²⁴ 護⁵²⁵ 護⁵²⁶ 護⁵²⁷ 護⁵²⁸ 護⁵²⁹ 護⁵³⁰ 護⁵³¹ 護⁵³² 護⁵³³ 護⁵³⁴ 護⁵³⁵ 護⁵³⁶ 護⁵³⁷ 護⁵³⁸ 護⁵³⁹ 護⁵⁴⁰ 護⁵⁴¹ 護⁵⁴² 護⁵⁴³ 護⁵⁴⁴ 護⁵⁴⁵ 護⁵⁴⁶ 護⁵⁴⁷ 護⁵⁴⁸ 護⁵⁴⁹ 護⁵⁵⁰ 護⁵⁵¹ 護⁵⁵² 護⁵⁵³ 護⁵⁵⁴ 護⁵⁵⁵ 護⁵⁵⁶ 護⁵⁵⁷ 護⁵⁵⁸ 護⁵⁵⁹ 護⁵⁶⁰ 護⁵⁶¹ 護⁵⁶² 護⁵⁶³ 護⁵⁶⁴ 護⁵⁶⁵ 護⁵⁶⁶ 護⁵⁶⁷ 護⁵⁶⁸ 護⁵⁶⁹ 護⁵⁷⁰ 護⁵⁷¹ 護⁵⁷² 護⁵⁷³ 護⁵⁷⁴ 護⁵⁷⁵ 護⁵⁷⁶ 護⁵⁷⁷ 護⁵⁷⁸ 護⁵⁷⁹ 護⁵⁸⁰ 護⁵⁸¹ 護⁵⁸² 護⁵⁸³ 護⁵⁸⁴ 護⁵⁸⁵ 護⁵⁸⁶ 護⁵⁸⁷ 護⁵⁸⁸ 護⁵⁸⁹ 護⁵⁹⁰ 護⁵⁹¹ 護⁵⁹² 護⁵⁹³ 護⁵⁹⁴ 護⁵⁹⁵ 護⁵⁹⁶ 護⁵⁹⁷ 護⁵⁹⁸ 護⁵⁹⁹ 護⁶⁰⁰ 護⁶⁰¹ 護⁶⁰² 護⁶⁰³ 護⁶⁰⁴ 護⁶⁰⁵ 護⁶⁰⁶ 護⁶⁰⁷ 護⁶⁰⁸ 護⁶⁰⁹ 護⁶¹⁰ 護⁶¹¹ 護⁶¹² 護⁶¹³ 護⁶¹⁴ 護⁶¹⁵ 護⁶¹⁶ 護⁶¹⁷ 護⁶¹⁸ 護⁶¹⁹ 護⁶²⁰ 護⁶²¹ 護⁶²² 護⁶²³ 護⁶²⁴ 護⁶²⁵ 護⁶²⁶ 護⁶²⁷ 護⁶²⁸ 護⁶²⁹ 護⁶³⁰ 護⁶³¹ 護⁶³² 護⁶³³ 護⁶³⁴ 護⁶³⁵ 護⁶³⁶ 護⁶³⁷ 護⁶³⁸ 護⁶³⁹ 護⁶⁴⁰ 護⁶⁴¹ 護⁶⁴² 護⁶⁴³ 護⁶⁴⁴ 護⁶⁴⁵ 護⁶⁴⁶ 護⁶⁴⁷ 護⁶⁴⁸ 護⁶⁴⁹ 護⁶⁵⁰ 護⁶⁵¹ 護⁶⁵² 護⁶⁵³ 護⁶⁵⁴ 護⁶⁵⁵ 護⁶⁵⁶ 護⁶⁵⁷ 護⁶⁵⁸ 護⁶⁵⁹ 護⁶⁶⁰ 護⁶⁶¹ 護⁶⁶² 護⁶⁶³ 護⁶⁶⁴ 護⁶⁶⁵ 護⁶⁶⁶ 護⁶⁶⁷ 護⁶⁶⁸ 護⁶⁶⁹ 護⁶⁷⁰ 護⁶⁷¹ 護⁶⁷² 護⁶⁷³ 護⁶⁷⁴ 護⁶⁷⁵ 護⁶⁷⁶ 護⁶⁷⁷ 護⁶⁷⁸ 護⁶⁷⁹ 護⁶⁸⁰ 護⁶⁸¹ 護⁶⁸² 護⁶⁸³ 護⁶⁸⁴ 護⁶⁸⁵ 護⁶⁸⁶ 護⁶⁸⁷ 護⁶⁸⁸ 護⁶⁸⁹ 護⁶⁹⁰ 護⁶⁹¹ 護⁶⁹² 護⁶⁹³ 護⁶⁹⁴ 護⁶⁹⁵ 護⁶⁹⁶ 護⁶⁹⁷ 護⁶⁹⁸ 護⁶⁹⁹ 護⁷⁰⁰ 護⁷⁰¹ 護⁷⁰² 護⁷⁰³ 護⁷⁰⁴ 護⁷⁰⁵ 護⁷⁰⁶ 護⁷⁰⁷ 護⁷⁰⁸ 護⁷⁰⁹ 護⁷¹⁰ 護⁷¹¹ 護⁷¹² 護⁷¹³ 護⁷¹⁴ 護⁷¹⁵ 護⁷¹⁶ 護⁷¹⁷ 護⁷¹⁸ 護⁷¹⁹ 護⁷²⁰ 護⁷²¹ 護⁷²² 護⁷²³ 護⁷²⁴ 護⁷²⁵ 護⁷²⁶ 護⁷²⁷ 護⁷²⁸ 護⁷²⁹ 護⁷³⁰ 護⁷³¹ 護⁷³² 護⁷³³ 護⁷³⁴ 護⁷³⁵ 護⁷³⁶ 護⁷³⁷ 護⁷³⁸ 護⁷³⁹ 護⁷⁴⁰ 護⁷⁴¹ 護⁷⁴² 護⁷⁴³ 護⁷⁴⁴ 護⁷⁴⁵ 護⁷⁴⁶ 護⁷⁴⁷ 護⁷⁴⁸ 護⁷⁴⁹ 護⁷⁵⁰ 護⁷⁵¹ 護⁷⁵² 護⁷⁵³ 護⁷⁵⁴ 護⁷⁵⁵ 護⁷⁵⁶ 護⁷⁵⁷ 護⁷⁵⁸ 護⁷⁵⁹ 護⁷⁶⁰ 護⁷⁶¹ 護⁷⁶² 護⁷⁶³ 護⁷⁶⁴ 護⁷⁶⁵ 護⁷⁶⁶ 護⁷⁶⁷ 護⁷⁶⁸ 護⁷⁶⁹ 護⁷⁷⁰ 護⁷⁷¹ 護⁷⁷² 護⁷⁷³ 護⁷⁷⁴ 護⁷⁷⁵ 護⁷⁷⁶ 護⁷⁷⁷ 護⁷⁷⁸ 護⁷⁷⁹ 護⁷⁸⁰ 護⁷⁸¹ 護⁷⁸² 護⁷⁸³ 護⁷⁸⁴ 護⁷⁸⁵ 護⁷⁸⁶ 護⁷⁸⁷ 護⁷⁸⁸ 護⁷⁸⁹ 護⁷⁹⁰ 護⁷⁹¹ 護⁷⁹² 護⁷⁹³ 護⁷⁹⁴ 護⁷⁹⁵ 護⁷⁹⁶ 護⁷⁹⁷ 護⁷⁹⁸ 護⁷⁹⁹ 護⁸⁰⁰ 護⁸⁰¹ 護⁸⁰² 護⁸⁰³ 護⁸⁰⁴ 護⁸⁰⁵ 護⁸⁰⁶ 護⁸⁰⁷ 護⁸⁰⁸ 護⁸⁰⁹ 護⁸¹⁰ 護⁸¹¹ 護⁸¹² 護⁸¹³ 護⁸¹⁴ 護⁸¹⁵ 護⁸¹⁶ 護⁸¹⁷ 護⁸¹⁸ 護⁸¹⁹ 護⁸²⁰ 護⁸²¹ 護⁸²² 護⁸²³ 護⁸²⁴ 護⁸²⁵ 護⁸²⁶ 護⁸²⁷ 護⁸²⁸ 護⁸²⁹ 護⁸³⁰ 護⁸³¹ 護⁸³² 護⁸³³ 護⁸³⁴ 護⁸³⁵ 護⁸³⁶ 護⁸³⁷ 護⁸³⁸ 護⁸³⁹ 護⁸⁴⁰ 護⁸⁴¹ 護⁸⁴² 護⁸⁴³ 護⁸⁴⁴ 護⁸⁴⁵ 護⁸⁴⁶ 護⁸⁴⁷ 護⁸⁴⁸ 護⁸⁴⁹ 護⁸⁵⁰ 護⁸⁵¹ 護⁸⁵² 護⁸⁵³ 護⁸⁵⁴ 護⁸⁵⁵ 護⁸⁵⁶ 護⁸⁵⁷ 護⁸⁵⁸ 護⁸⁵⁹ 護⁸⁶⁰ 護⁸⁶¹ 護⁸⁶² 護⁸⁶³ 護⁸⁶⁴ 護⁸⁶⁵ 護⁸⁶⁶ 護⁸⁶⁷ 護⁸⁶⁸ 護⁸⁶⁹ 護⁸⁷⁰ 護⁸⁷¹ 護⁸⁷² 護⁸⁷³ 護⁸⁷⁴ 護⁸⁷⁵ 護⁸⁷⁶ 護⁸⁷⁷ 護⁸⁷⁸ 護⁸⁷⁹ 護⁸⁸⁰ 護⁸⁸¹ 護⁸⁸² 護⁸⁸³ 護⁸⁸⁴ 護⁸⁸⁵ 護⁸⁸⁶ 護⁸⁸⁷ 護⁸⁸⁸ 護⁸⁸⁹ 護⁸⁹⁰ 護⁸⁹¹ 護⁸⁹² 護⁸⁹³ 護⁸⁹⁴ 護⁸⁹⁵ 護⁸⁹⁶ 護⁸⁹⁷ 護⁸⁹⁸ 護⁸⁹⁹ 護⁹⁰⁰ 護⁹⁰¹ 護⁹⁰² 護⁹⁰³ 護⁹⁰⁴ 護⁹⁰⁵ 護⁹⁰⁶ 護⁹⁰⁷ 護⁹⁰⁸ 護⁹⁰⁹ 護⁹¹⁰ 護⁹¹¹ 護⁹¹² 護⁹¹³ 護⁹¹⁴ 護⁹¹⁵ 護⁹¹⁶ 護⁹¹⁷ 護⁹¹⁸ 護⁹¹⁹ 護⁹²⁰ 護⁹²¹ 護⁹²² 護⁹²³ 護⁹²⁴ 護⁹²⁵ 護⁹²⁶ 護⁹²⁷ 護⁹²⁸ 護⁹²⁹ 護⁹³⁰ 護⁹³¹ 護⁹³² 護⁹³³ 護⁹³⁴ 護⁹³⁵ 護⁹³⁶ 護⁹³⁷ 護⁹³⁸ 護⁹³⁹ 護⁹⁴⁰ 護⁹⁴¹ 護⁹⁴² 護⁹⁴³ 護⁹⁴⁴ 護⁹⁴⁵ 護⁹⁴⁶ 護⁹⁴⁷ 護⁹⁴⁸ 護⁹⁴⁹ 護⁹⁵⁰ 護⁹⁵¹ 護⁹⁵² 護⁹⁵³ 護⁹⁵⁴ 護⁹⁵⁵ 護⁹⁵⁶ 護⁹⁵⁷ 護⁹⁵⁸ 護⁹⁵⁹ 護⁹⁶⁰ 護⁹⁶¹ 護⁹⁶² 護⁹⁶³ 護⁹⁶⁴ 護⁹⁶⁵ 護⁹⁶⁶ 護⁹⁶⁷ 護⁹⁶⁸ 護⁹⁶⁹ 護⁹⁷⁰ 護⁹⁷¹ 護⁹⁷² 護⁹⁷³ 護⁹⁷⁴ 護⁹⁷⁵ 護⁹⁷⁶ 護⁹⁷⁷ 護⁹⁷⁸ 護⁹⁷⁹ 護⁹⁸⁰ 護⁹⁸¹ 護⁹⁸² 護⁹⁸³ 護⁹⁸⁴ 護⁹⁸⁵ 護⁹⁸⁶ 護⁹⁸⁷ 護⁹⁸⁸ 護⁹⁸⁹ 護⁹⁹⁰ 護⁹⁹¹ 護⁹⁹² 護⁹⁹³ 護⁹⁹⁴ 護⁹⁹⁵ 護⁹⁹⁶ 護⁹⁹⁷ 護⁹⁹⁸ 護⁹⁹⁹ 護¹⁰⁰⁰ 護¹⁰⁰¹ 護¹⁰⁰² 護¹⁰⁰³ 護¹⁰⁰⁴ 護¹⁰⁰⁵ 護¹⁰⁰⁶ 護¹⁰⁰⁷ 護¹⁰⁰⁸ 護¹⁰⁰⁹ 護¹⁰¹⁰ 護¹⁰¹¹ 護¹⁰¹² 護¹⁰¹³ 護¹⁰¹⁴ 護¹⁰¹⁵ 護¹⁰¹⁶ 護¹⁰¹⁷ 護¹⁰¹⁸ 護¹⁰¹⁹ 護¹⁰²⁰ 護¹⁰²¹ 護¹⁰²² 護¹⁰²³ 護¹⁰²⁴ 護¹⁰²⁵ 護¹⁰²⁶ 護¹⁰²⁷ 護¹⁰²⁸ 護¹⁰²⁹ 護¹⁰³⁰ 護¹⁰³¹ 護¹⁰³² 護¹⁰³³ 護¹⁰³⁴ 護¹⁰³⁵ 護¹⁰³⁶ 護¹⁰³⁷ 護¹⁰³⁸ 護¹⁰³⁹ 護¹⁰⁴⁰ 護¹⁰⁴¹ 護¹⁰⁴² 護¹⁰⁴³ 護¹⁰⁴⁴ 護¹⁰⁴⁵ 護¹⁰⁴⁶ 護¹⁰⁴⁷ 護¹⁰⁴⁸ 護¹⁰⁴⁹ 護¹⁰⁵⁰ 護¹⁰⁵¹ 護¹⁰⁵² 護¹⁰⁵³ 護¹⁰⁵⁴ 護¹⁰⁵⁵ 護¹⁰⁵⁶ 護¹⁰⁵⁷ 護¹⁰⁵⁸ 護¹⁰⁵⁹ 護¹⁰⁶⁰ 護¹⁰⁶¹ 護¹⁰⁶² 護¹⁰⁶³ 護¹⁰⁶⁴ 護¹⁰⁶⁵ 護¹⁰⁶⁶ 護¹⁰⁶⁷ 護¹⁰⁶⁸ 護¹⁰⁶

그 꽃 위는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빛도 또한 그러하며) <구인02:11-13>

- (6)은 ‘-ヒハニ-’에 연결어미 ‘-カ’가 결합한 용례임.
- (5)는 ‘-ヒハニ-’에 종결어미 ‘-ト’가 결합하여 하나의 장면 혹은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형식만으로는 모종의 상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즉, 종결된 사건 속에서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에 상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결과 상태로 유지되는지 등의 상적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움.
- 그러나 ‘-ヒハニ-’에 연결어미 ‘-カ’가 결합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름.
- 선행절의 동사, 즉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후행절에 다시 나타난다면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의 동작 혹은 상태가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6㉔)에서 ‘-ヒハニ-’가 결합한 선행절의 동사는 ‘照ッ-’이며, 이는 ‘大光明’을 논항으로 삼음. 이어지는 후행절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정수리에서 천보연화가 나오고, 그 꽃의 위가 非想非非想天에 이르며, 그 빛[光] 또한 그러하다고 서술됨(6㉕).
- 이때 후행절의 ‘빛[光]’은 선행절의 ‘大光明’을 의미함.
- 정리하자면, 대광명이 천보연화 위의 비상비비상천에 이른다는 후행절의 내용을 통하여 선행절의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 ‘照ッ-’의 동작이 후행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교적으로도 부처의 放光은 법회가 열리거나 말씀이 전개될 때, 상서나 교화 범위의 확장을 나타내므로 (6)의 ‘照ッヒハニカ’에 대하여서도 大光明의 비춤이 선행절에서 끝나지 않고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법회의 총체적 장면을 아우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물론 선어말어미 ‘-ヒ-’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상성]의 기능도 함께 고려해 봄직함(박진호 2010, 문현수·허인영 2018).
- 다만, 여기서는 ‘-ヒハニ-’의 상적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ヒハニカ’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의미적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가 동작 혹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함.

(7) 時ト 諸ト 大衆ト 月光王ト 十四王ヲ 量無セト 功德藏ト 歎ッニトウト入ト 聞白ロッ
 1 ㉔大法利ト 得ヒハニカ 卽リ {於}座セ 中ヲ 十恒沙セ 天王ト 十恒沙セ 梵王ト 十恒沙セ 鬼神王ト 乃シ 至リ 三趣セヲ ノク 有セナト 1 ㉕無生法忍ト 得ナカ 八部 阿須輪王ト ㉖現ヲ 鬼神ト 轉ッロ ㉗天上ヲ 道ト 受ナカ ㉘三生トッロ ㉙正位ヲ 入ッヒカ {者} 或ッ 1 ㉚四生ト 五生ト 乃シ 至リ 十生ト ㉛得ホ正位ヲ 入ッヒカ ㉜聖人性ト 證ッヒカ ㉝一切 無量報ト 得ヒカ 1 (이때에 모든 大衆은 月光王이 十四王의 한량 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데 듣고 서는 大法利를 얻고 계시며 곧 座中에 十恒沙의 天王이니 十恒沙의 梵王이니 十恒沙의 鬼神王이니 내지 三趣의 것이니 하는 것들이 있으니 無生法忍을 얻으며 八部 阿須輪王은 현재에서 鬼身을 轉하고 天上에서 道를 받으며 三生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혹은 四生이니 五生이니 내지 十生이니 하는 것을 하고 능히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하며 聖人性을 證한 자도 있으며 一切 無量報를 얻은 자도 있다) <구인11:14-19>

- (7)의 경우도 (6)과 동례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7㉔)에서 ‘-ㄷㅏㅓㅓ’가 결합한 선행절의 동사는 ‘得ㅓ-’이며 ‘大法利’를 논항으로 삼음. 이어지는 후행절에서는 좌중의 대중들이 얻은 大法利가 나열되고 있음(7㉕-㉖).
- 후행절의 (7㉕-㉖)는 선행절을 이끄는 동사 ‘得ㅓ-’의 논항인 ‘대법리’의 구체적 실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후행절에서 무생법인을 얻고 도를 받으며 정위에 들어가고 일체무량보를 얻는다는 대법리가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통하여 선행절의 ‘-ㄷㅏㅓㅓ’가 결합한 동사 ‘得ㅓ-’의 동작이 후행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ㄷㅏㅓㅓ’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의미적 연속성은 ‘-ㄷㅏㅓㅓ’가 결합한 동사를 동작 및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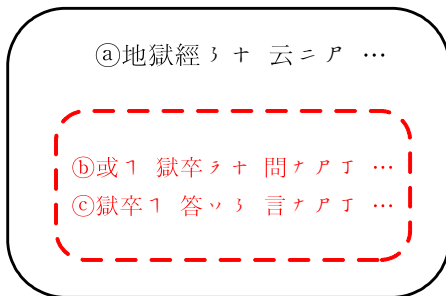
2.3. ‘-ㅓ’과 ‘ㅓㅓ’의 담화적 위계 설정

- 일반적으로 인용구문은 아래 2가지 유형이 있음.
 - ① [S_{피인용문} V_{인용술어}]
 - ② [V_{인용술어} S_{피인용문}]
- 한문 원문의 영향으로 단언 ②의 경우가 많음.
-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②의 인용술어에 주로 ‘-오딧’가 오듯이,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주로 ‘-ㅓ’ 혹은 ‘-ㅓㅓ’가 옴.
- 김지오(2012: 237-238)에서는 ‘-ㅓㅓ’가 ‘동명사어미#의존명사+여’ 구성으로서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ㅓ’, ‘-ㅓㅓ’처럼 [배경] 또는 [설명]의 연결어미로 파악하였음. 아울러 ‘-ㅓ’는 “말하기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ㅓㅓ’는 “말하는데”로 해석하여 인용문에 나타난 말이나 생각이 누구의 것인지 발화의 출처를 제시하거나 대화의 정황 따위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았음.
- 김지오(2012: 237)에서는 <화소>에서는 ‘-ㅓ’ 대신에 ‘-ㅓㅓ’가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전기량(2023: 153)에서는 <화소>와 <자비>에서는 ‘ㅓ’이 아닌 ‘ㅓㅓ’가 인용문을 이끄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ㅓ’과 ‘-ㅓㅓ’에 대하여서는 인용구문과 계통론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떠오르게 함.
- 본 절에서는 ‘-ㅓ’과 ‘-ㅓㅓ’에 대하여 담화적 위계에 따른 인용술어의 활용형 차이로 파악하고자 함.
-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화엄경 계통에서만 확인되는 계통론적 판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2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① 실제로 ‘-ㅓ’과 ‘-ㅓㅓ’가 이끄는 인용구문이 담화적 위계에 따라 구분되는지?
 - ② 위의 기준이 화엄경에 해당된다면,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ㅓ’과 ‘-ㅓㅓ’에 따른 담화적 위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

- 애초에 ‘-尸’과 ‘-尸丁’에 집중하게 된 원인은 <자비>의 인용구문에 있음.
- <자비>에서는 인용구문이 실현될 때, ②의 인용술어에 ‘-尸’과 ‘-尸丁’ 모두 나타남.
- 그러나 인용되는 담화 내용을 보았을 때, 모종의 층위를 이루는 듯함.

(8) ㉠地獄經ト云ニ尸地獄セ間ト住ノモセ宮城セ縱廣一三支萬里リト銅鐵ニ成リ所リニ… ㉢或一獄卒ヲ問ナ尸丁衆生リ苦乙受トイハ一甚シ悲念ノ可セツ一乙而一汝一常リ酷毒乙懷セツ慈愍ノ今セ心ニ無セナトソナ一 ㉣獄卒一答ツ言ナ尸丁此如ツ一罪惡セ諸一苦乙受トモセ者一父母乙孝尸不ツニ… (지옥경에 이르시기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궁성의 세로 가로는 삼만 리인데 구리와 철로 이룬 바이며, … 누구는 옥졸에게 묻기를,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심히 슬퍼함 직하거늘 너는 항상 심한 독을 품어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하니 獄卒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괴로움을 받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 <E자비20:04-21:05>

(8') <자비> 담화 층위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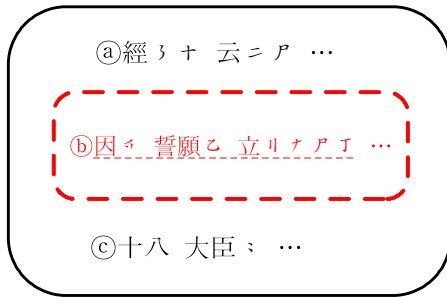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8)은 <자비>에서 담화의 위계에 따라 ‘-尸’과 ‘-尸丁’가 구분되는 대표적인 용례임.
- 지옥경의 내용은 상위 담화로서 인용술어에 ‘-尸’가 결합하며(8㉠), 지옥경 내부의 옥졸 담화에서는 ‘-尸丁’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8㉢, ㉣).

(9) ㉠經ト云ニ尸閻羅王一 一念セ{之}惡入乙ニ便獄事乙總ト自ヲ身ト苦乙受イ尸ム亦一論ツイニ可セツ一不矢口モ閻羅大王一昔尸毘沙國セ王リ尸{爲}ハソ一ナ一ニ維陀始王乙與セツハ共セ戰イム兵セ力リ如[及]セ不モツハ一 ㉢因イ誓願乙立リナ尸丁願入一我一後生ト地獄ト主リ尸{爲}ハソハ此罪人乙治リロ乙イニセ一 ㉣十八大臣ニ及セ百一萬衆ニ今カ皆セ悉ト同リ願乙ソナ一 (경에 이르시기를 “염라왕은 일념의 악 때문에 곧 옥사를 맡아 제 몸에 고통을 받되 또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염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불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후생에 지옥에 있는 주인이 되어서 이 죄인을 다스리겠습니다.” 하였으며 십팔 대신이니 및 백만 대중이니 하는 이도 모두 다 같이 서원을 하였다) <자비19:14-19>

(9') <자비> 담화 층위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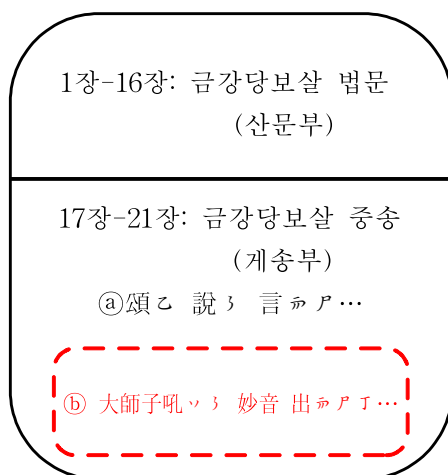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9)에서도 마찬가지로 ‘-尸’로 상위 담화가 시작되고(9㉑, ㉓), 하위 담화가 인용될 때에는 ‘-尸丁’가 사용되었음(9㉒).
- <자비>는 계통론적으로 화엄경 계통에 가까움(문현수 2020 참조).
- <자비>에서 확인되는 ‘-尸’와 ‘-尸丁’의 담화적 위계 구분은 화엄경 계통에서 뚜렷하게 관찰됨.
- 우선 많은 용례가 확보되는 점토석독구결 주본 화엄경 자료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검토하고자 함.¹⁾

- (10) ㉑爾時ト金剛幢菩薩ト佛ト神力乙承(リ)白ト普リ十方(乙)觀(ソ)口而…頌乙說ト言ニ尸… ㉒大師子吼ソ妙音出ニ尸丁我世間トセ第一尊リ尸爲入乙(ソ)而イ(リ)四明淨(ソ)トセ智慧ト燈乙然リトホ彼生死ト愚癡ト闇乙滅ノ應トセ(ソ)トセ(ソ)トセ(ソ)而(ト)分(그때 金剛幢菩薩은 부처의神力을 받들어 널리 十方을 觀하고頌을 일러 말하기를, … 大師子吼하여 妙音 내시기를, “나는 世間の 第一尊이어서, 明淨한 智慧의 燈을 밝혀서 저 生死의 愚癡의 闇을 滅해야 한다.” 하시며,) <주본화엄 31, 16:24-18:19>

(10') 주본 『화엄경』 권31 담화 층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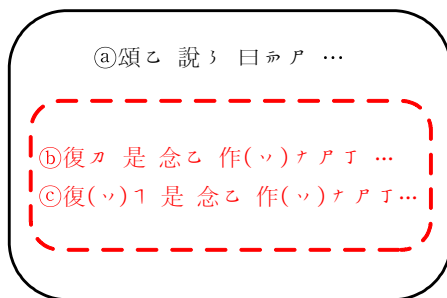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1) 점토구결 용례는 약식으로 구결문과 현대어역만 수록하였으며 해독은 문현수(2017)와 장경준(2023)을 참고하였다.

- 주본 『화엄경』 권31은 『화엄경의 十迴向品 가운데 第九 無著無縛解脫迴向에 해당하며 전반부는 산문부로서 금강당보살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계송부로서 금강당보살의 중송으로 이루어져 있음.
- 통상 산문으로 된 법문 다음에 다시 그 뜻을 간결하게 묶어서 운문으로 보인 계송을 중송이라 함.
- 대승경전에서 계송은 사문 사이에 운문인 계송이 삽입되든지, 줄곧 산문의 형태로 서술되다 마지막을 계송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계송은 부처님의 설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경전의 핵심으로서 법문의 요체를 담아내고 있음(배규범 2000: 183-184 참조).
- 이에 계송부는 경전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담아내는 만큼 구조적으로 산문부와 대등한 담화 층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10').
- 다시 말해 계송은 법문의 요체를 담아내고 있으므로 상위 담화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인용술어에는 ‘-ㅍ’이 결합함(10㉓).
- 계송 내부에서 하위 담화가 실현될 때에는 ‘-ㅍㅓ’가 사용됨(10㉔).

(11) ㉓爾時(+) 金剛藏菩薩 十方(+) 觀察(+) 大衆(+) 淨信(+) 增(+) 令(+) {欲} (+) 入(+) 故(+) 而(+) 頌(+) 說(+) 曰(+) 我(+) ... ㉔復(+) 是 念(+) 作(+) 我(+) 轉(+) 一切 世間(+) 境界(+) 離(+) 我(+) 故(+) 歡喜(+) 生(+) ... ㉕復(+) 是 念(+) 作(+) 此 諸(+) 衆生(+) 我(+) 救拔(+) {於} 究竟 安樂(+) {之} 處(+) 置(+) {應} (+) {我(+) 故(+) 即(+) 大慈(+) 光明智(+) 生(+) 我(+) (그 때에 金剛藏菩薩은 十方을 觀察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고자 하므로 계송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 또 이 念을 짓기를 ‘나는 점점 一切 世間の 境界를 여윈다’ 하기 때문에 歡喜한 것을 내며 ... 또 이 念을 짓기를 ‘이 모든 衆生을 나는 救拔하여서 究竟 安樂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大慈의 光明智를 낸다) <주본화엄34, 08:07-15:03>

(11') 주본 『화엄경』 권34 담화 층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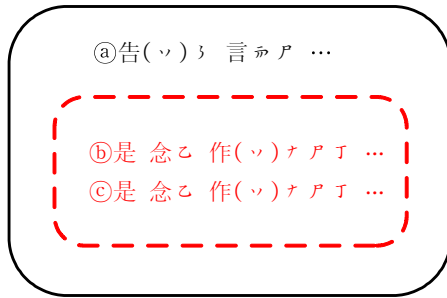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주본 『화엄경』 권34에서도 (9, 10)과 동일하게 담화 층위가 관찰되며 상위 담화에는 ‘-ㅍ’, 하위 담화에는 ‘-ㅍㅓ’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2) ㉠爾 時十 金剛藏菩薩 一 解脫月菩薩 尸十 告(ッ)ゞ 言 卍尸 ... ㉡佛子 一 此 菩薩摩訶薩 一 {復}ヲ 是 念乙 作(ッ)ナ尸丁 ... ㉢佛子 一 此 菩薩摩訶薩 一 {復}ヲ 是 念乙 作(ッ)ナ尸丁 ... (이때 金剛藏菩薩은 解脫月菩薩께 告하여 말씀하시기를, ... 불자여, 이 菩薩摩訶薩은 또 이런 생각을 作하기를, ... 불자여, 이 菩薩摩訶薩은 또 이런 생각을 作하기를, ...) <주본화엄36, 07:22-09:22>

(12') 주본 『화엄경』 권36 담화 층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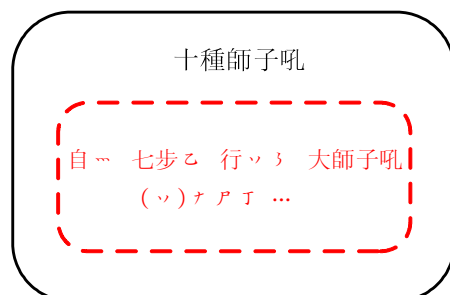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주본 『화엄경』 권36에서도 (9, 10, 11)과 동일하게 담화 층위가 관찰되며 상위 담화에는 ‘-尸’, 하위 담화에는 ‘-尸丁’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앞서 계송부는 구조적으로 산문부와 대등한 담화 층위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산문부와 계송부는 서로 대등한 층위의 담화인 만큼, 산문부에서 실현되는 하위 담화는 단연 ‘-尸丁’로 실현됨.
- 주본 『화엄경』 권57에서는 권34·36과 달리 상위 담화가 ‘-尸’가 결합한 인용술어로 열리는 않음.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師子吼<주본화엄57, 19:14-15>’과 같이 전형적인 법수식 구성으로서 산문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발표문에서 말하는 법수식 구조란 十種, 何等爲十, 등과 같이 경전의 내용을 일정한 수에 따라 제시하고 다시 그 내용을 열거하여 해설하는 구성을 가리킴.
- 법수식 구조인 ‘十種師子吼’에는 총 열 개의 사자후가 ‘-尸丁’를 통하여 하위 담화를 이루고 있음.

- (12) 自 卍 七步乙 行ッゞ 大師子吼(ッ)ナ尸丁 我 一 {於}世間十 最勝 第一(リ)卍 〃 我 一 當ハ 永々 生死セ 邊際乙 盡ッ 〃 尸入乙(ッ)卍 〃 (스스로 七步를 걷고 큰 師子吼를 하기를, “나는 世間に 最勝 第一이며, 나는 반드시 영원히 生死의 邊際를 다하는 것을 하겠다.”) <주본화엄57, 20:08-10>

(12') 주본 『화엄경』 권57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만과 견과 의와 무명과 등의 여러 수번뇌가 오염하는 바가 되는 까닭으로, 일컬어 원만하여서 청정 선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수번뇌를 현행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서이며, 마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까닭에서이며,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그는 이 생각함을 짓기를, ‘나는 반드시 심자재성이니 정자재성이니 하는 것을 증득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여 네 처소에서 스물두 상으로써 잘 관찰해야 한다. <유가16:09-16>

(15') <유가> 담화 증위 예시 1

三摩地自在

㉔復次已ᄃ 根本三摩地ᄃ 證得ᄃ 1 入ᄃ ...

㉔彼 1 是 思ノ入ᄃ 作ᄃ ナ 入ᄃ ...

㉔四處所 1 22 相ᄃ {以}ᄃ ...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15)는 수소성지의 7지 중 6지에 해당하는 세간일체중청정의 내용으로서 삼마지자재라는 상위 담화를 상정할 수 있음.
- (15㉔)는 수행자가 마음을 단련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사유하는 장면으로서 상위 담화인 삼마지자재 내부에 위치하는 하위 담화로 이해할 수 있음.
- (8)부터 (14)까지 살펴본 결과, 화엄경 계통이라면 해당 부분은 하위 담화이므로 ‘*作ᄃ 나 入ᄃ’과 같이 ‘- 入ᄃ’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 入ᄃ’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6) ㉔有ナ(1) 出家外道リ 名ヲ 曰フ 无繫ノ入ᄃ ㉔彼 1 是 說ノ 1 入ᄃ 作ナ 百 踰繕那 内ナ 有ᄃ 1 所ᄃ 衆生xナ {於}彼 1 律儀ノ 若 不律儀ノ(11) x 入ᄃ ... ㉔彼ᄃ 治(ᄃ){爲}入(ᄃ)ニ 入ᄃ ... {故}ノ ㉔是 如(支)ᄃ 1 言ᄃ 說ニ 入ᄃ 一切 有情 1 所ナ x ㉔即 彼 外道 1 復 是 說ノ 1 入ᄃ 作ナ 樹 等ᄃ 1 外物ナ 亦 生命 有(セ) 1 x 入ᄃ ... ㉔彼ᄃ 治(ᄃ){爲}入(ᄃ){故}(ᄃ)ニ 入ᄃ ... ㉔是 如(支)ᄃ 1 言ᄃ 說ニ 入ᄃ 眞實衆生(2) 所ナ x 1. (있다, 出家外도가 이름이 일컫기를 무계라고 하는 이가. (그는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기를, “백 유선나 안에 있는 바의 중생에 대하여 그에게 律儀와 不律儀이다”함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설하시기를, “一切 有情에게 (있다.)” 하시며, 곧 그 外道는 다시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기를, “樹 등의 外物에 또한 생명이 있다.”함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시기를, “眞實衆生에게 (있다.)” 하신다.) <유가08 10:12-17>

(16') 『유가사지론』 권8 담화 층위 예시

補特伽羅相差別建立

㉑有^ナ(¹) 出家外道^リ ...

㉒彼¹ 是 說^ノ ¹入^乙 作^ナ ^ル ...

㉓彼^乙 治(^ッ){爲}^ス(^ッ)ニ^ル入^乙 ...{故}^ノ

㉔是 如(支)^ッ ¹ 言^乙 說ニ^ル ...

㉕卽 彼 外道¹ 復 是 說^ノ ¹入^乙 作^ナ ^ル...

㉖彼^乙 治(^ッ){爲}^ス(^ッ){故}(^ッ)ニ^ル入^乙 ...

㉗是 如(支)^ッ ¹ 言^乙 說ニ^ル ...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점토구결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에서도 (15, 15')과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16)은 수소대치 가운데 業雜染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특가라상차별견립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위 담화로 상정할 수 있음.
- 여기에서 무계라는 외도의 발화와 이를 교화하고자 외도에게 건네는 세존의 말씀을 하위 담화로 설정할 수 있음.
- 화엄경 계통에서는 ‘-^ル」’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16)에서는 하위 담화에 ‘-^ル’이 사용됨.
- 논의의 편의성을 위하여 본 발표문에서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경전 내용의 위계 양상은 이미 과판(科判)이라는 분석적 작업의 결과물임.
- 또한 과판을 바탕으로 과목과 과단을 나누어 도식화한 과문은 동아시아 불교 문헌 분석의 백미라 할 수 있음(조은수·서정형 2014 참조).
- 그렇기에 본 발표문에서처럼 담화라는 단위로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한 것은 과판과 과문이 견지하고 있는 분석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됨.
- 과판에 근거하여 과목을 설정하고 과목을 아울러 과단으로 묶어내는 체계성은 자연히 경전 내용의 위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임.
- 화엄경과 유가사지론 계통은 모두 과판에 근거하여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화엄경 계통은 상위 담화에 인용구문이 나타날 경우 ‘-^ル」’를, 하위 담화에는 ‘-^ル」’를 사용하며 유가사지론 계통은 담화 층위에 상관없이 모두 ‘-^ル」’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 문현수(2020)에서 어휘 표기, 조사, 말음첨기, 선어말어미, 음운현상 표기 등 14개의 기

준을 바탕으로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을 구분하였음.

- 기존에는 형태·음운·어휘 중심의 계통론적 기준이었다면, 더 나아가 본 절에서 살펴본 담화 층위에 따른 ‘-尸’와 ‘-尸丁’의 구분은 새로운 계통론적 기준의 후보로 검토해 볼직함.
- 이에 따르면 <자비>는 ‘-尸’와 ‘-尸丁’를 구분하는 화엄경 계통이며 <구인>은 구분하지 않는 유가사지론 계통임.

3. 나가며

▶ 요약

- ① <구인>에서는 다른 경전 혹은 이후의 신역에서 높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인물이나, 화자의 높임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위가 낮은 인물에게까지도 선어말어미 ‘-ニ-’가 쓰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다른 문헌에 비하여 <구인>에서 선어말어미 ‘-ニ-’가 과대표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② <구인>에서 ‘-ヒハニ-’이 과대표되어 중점적으로 살펴봄. 연결어미 ‘-カ’가 결합하는 맥락에서 선행절의 동사, 즉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후행절에 다시 나타난다면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의 동작 혹은 상태가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시함. 즉, ‘-ヒハニカ’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의미적 연속성을 ‘-ヒハニ-’가 결합한 동사를 동작 및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분석함.
- ③ <자비>의 인용술어에서 관찰되는 ‘-尸’와 ‘-尸丁’에 대하여 담화적 위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함. 이를 계통론적 기준과 관련된 논의로 확대하여 화엄경 계통에서는 상위 담화에는 ‘-尸’이, 하위 담화에는 ‘-尸丁’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담화의 위계와 상관 없이 모두 ‘-尸’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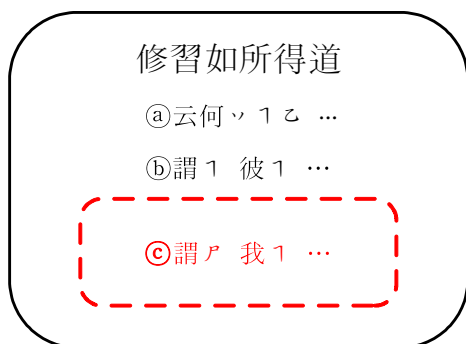
	화엄경	유가사지론
상위 담화	-尸	-尸
하위 담화	-尸丁	

▶ 한계 및 보완점

- <구인> 이외에도 다른 문헌들의 높임 대상의 범위는 동일한가? 아니면 계통별로 높임 대상의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ヒハニ-’가 동작 및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면, ‘-ヒハニ-’, ‘-ロハニ-’, ‘-ナハニ-’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남풍현(2017)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현대어역에 기반 해석만이 가능한가?
- 추가적인 계통론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담화 및 텍스트적으로 분석한다면 또 다른 계통론적 기준이 도출될 수 있을까? ㉠ 아우름 동사의 단위 등
- 유가사지론 계통에서 ‘謂尸’와 ‘謂尸’의 존재(17).

- (17) ㉠云何ッ 1 乙 得ノ 1 所 乙 如ハッ 1 道 乙 修習ッ 尸 矢 | ノ 今 ロ ㉡謂 1 彼 1 是 如 支 生
 ッ 1 所セ 廣大无罪歡喜… 其 心 乙 漑灌ッ 3 ホ 究竟 乙 趣ッ {爲} 人 {於} 現法セ 中 3 +
 心 極 思慕ノ 尸 ム 彼 1 是 如 支 心 3 + 思慕 乙 生リ 1 入 乙 由 3 出離樂欲 乙 數數リ 現
 行ッ 3 ホ ㉢謂 尸 我 1 何ニサ 尸 入 1 當ハ 能カ 具足キ 是 如 支 ッ 1 聖處 1 1 阿羅漢ヲ
 所具足住 如 支 ッ 1 3 + 住ノ 乙 1 3 3 + セロッ 3 (어떤 것을 얻은 바와 같은 도를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그는 이와 같이 생겨난 바의 광대하고 죄 없는 환희
 로 그 마음에 물을 대어서, 구경으로 나아가고자 현법의 가운데에서 마음 지극히 사모
 하되, 그는 이와 같이 마음에 사모함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리락욕을 자주 자주
 현행하여서, 이르기를 ‘나는 어찌하면 반드시 능히 구족하게 이와 같은 성스러운 처소
 인 아라한이 구족하게 머무는 곳과 같은 곳에 머물 것인가?’ 하며) <유가28:23-29:05>

(17') <유가> 담화 층위 예시 2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17)은 수소성지 가운데 출세간일체종청정 대한 내용으로서 수습여소득도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위 담화로 상정할 수 있음.
- 상위 담화에 ‘- 1’ 사용됨(17㉠).
- 하위 담화에서는 단연 ‘- 尸’이 사용됨(17㉢).
- 화엄경에서는 ‘- ノ 1 1’과 같이 ‘所’를 고려한 표현이 나오며, 인용술어에 단독으로 ‘- 1’이 결합하여 인용문을 이끄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물론, 유가사지론 계통에서 상위 담화에 문답 형식으로 ‘- 尸’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함.
-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상위 담화에 ‘- 1’과 ‘- 尸’이 둘 다 사용된 것인가?

참고문헌

-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구동악어문논집)』 58, 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악어문학회), 217-242.
- 남풍현(2017), 南豐鉉 (2017).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ㄱ/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9-170.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93, 국어학회.
- 문현수(2023), 향가와 석독구결에서 쓰이는 ‘支’와 ‘只’의 통용성, 구결연구 51, 구결학회.
- 문현수·허인영(2018), 문법 형태 ‘-느-’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2.
- 박진호(2010), 선어말어미 ‘-느 -’ 다시 보기, 간행위원회 편, (최명옥 선생 정년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763-778.
- 배규범(2000), 계송의 연원과 문학성, 백련불교논집 10, 성철사상연구원, 179-218.
- 성우철(202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ㅅ(습)-’의 기능에 관한 연구」, 『東洋學』 8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35.
- 성우철(2026),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56, 구결학회.
- 전기량(2023), 구결자 ‘ㅅ/ㅆ(여)’에 대한 고찰 -‘ㅅ/ㅆ’를 다시 생각함-, 구결연구 51, 구결학회.
- 조은수·서정형(2014), 불교의 주석 전통과 과문(科文)의 발달, 불교학연구 41, 불교학연구회, 1-25.